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6. 16. Vol. 24

■ 농정이슈

2014년 지방선거(6.4.) 당선인 농업 관련 공약

■ 정책브리핑

고랭지배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유도

■ 연구지원

2014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2014년 지방선거(6.4.) 당선인 농업 관련 공약〉

- **[양당 중점 공약]** 특화농업 육성(농업경쟁력 강화), 로컬푸드 사업 추진(식품안전 강화), 재해보험가입비 등 지원(농업경영 안정화), 귀농귀촌 지원(농촌발전)
- **[양당 공약 차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 17개 시·도 공약은 각각 ‘살기 좋은 농어촌’ 과 ‘농가소득 보전방안’ 으로 특징화 가능
 - **(새누리당)** 통상 대비(FTA관련, 농식품 수출 지원 및 피해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강화(농기업 육성 등)에 중점
 - **(새정치민주연합)** 식품안전 강화(로컬푸드 사업, 친환경농업 내실화 등)와 농촌복지 확대(취약계층 위한 지원확대)에 중점

■ 당별 농업 관련 주요공약, 시·도 당선인(17명) ■

〈새누리당 - 살기 좋은 농어촌〉	〈새정치민주연합 - 농가소득 보전방안〉
• 농축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 FTA 대비 농식품수출 지원 및 피해 대책 마련추진 •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 농어업 ‘CEO 2만 명’ 및 ‘1인 창조 농기업’ 육성 • 귀농귀촌 인구 증대 프로젝트 •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 농산물 재해보험가입비 보조 확대 • 지역별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지역에 맞는 특화농업 육성 추진 • 기타 생산자 소득 증대 위한 물류유통시스템 개선	• 로컬푸드 사업 추진 •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취약계층 위한 지원 확대 • 농축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 고령농업인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 및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지속적 발전 • 지역에 맞는 특화농업 육성 추진 • 생명농업 사업 육성 • 귀농귀촌인 창업보육센터 조성 • 농업의 6차 산업화 •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 기타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확대 및 복지바우처 지원

- **[기타 구시군 공약]** ‘테마형 주말농장 개설’,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농촌 마을 LPG집단공급시설 설치’, ‘농업인 자녀 대학생 용자지원’ 등 공약 제시
- **[농민단체, 각 정당에 제시한 농정공약 실천 요구]** 6.4 지방선거 이후 농정공약에 대해 언급한 정당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보여주기’ 에 그쳐
 - ※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새누리당) 최우선 과제, 무역개방 순이익 환수하는 ‘FTA 이익 공유제도’ 관심

자료 : 뉴스팝-중앙일보(2014.6.5.) / 농민신문(2014.6.9.) / 한국농어민신문(2014.6.12.)

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ocalList.do>)

농정이슈

한·캐나다 FTA 가서명

- **[한캐나다 FTA 가서명, 6.12일]** 양측 수석대표*, 서울에서 협정문 가서명, **올해 하반기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거쳐 협정 발효 예정

※ (한국)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캐나다)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 개발부 통상차관보

- **[협정 발효 후]** 10년 내 대다수 품목 관세 철폐 합의, 높은 수준 상품자유화 달성

구 분	한 국	캐나다
3년 이내 관세철폐	• (품목수) 86.1%, (수입액) 92.3%	• (품목수) 93.2%, (수입액) 95.9%
10년 이내 관세철폐	• (품목수) 97.5%, (수입액) 98.4%	• (품목수) 97.5%, (수입액) 98.7%

- **(한국 수출품)** 캐나다 수출 40% 차지하는 자동차 2년,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은 품목별로 발효 즉시 또는 3년 이내 관세 철폐
- **(캐나다산 수입품)** 농가 타격 우려해 쇠고기 15년에 걸쳐 점진적 관세 인하,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 **(세이프가드 발동)** 양국 모두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 발생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인 양자 세이프가드 발동
- ※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겔보리/쌀보리, 감자분, 팥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자료 : KBSYTN경향신문·국회뉴스news1·NEWSis머니투데이·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
이데일리·이투데이·조선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TV·헤럴드경제(2014.6.13.)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캐나다 FTA 가서명」(2014.6.13.)

한·중 FTA 제11차 협상…중국, 발작물 중심 시장개방 요구

- **[한중 FTA 제11차 협상, 양국 간 대립]** 5.26~30일간 중국 쓰촨성 메이산에서 개최, 검역협정에서 지역화 두고 양국 간 대립
- **(중국)** 검역협정문에 지역화 등 농산물 무역촉진 위한 요소 포함 주장
- **(한국)** WTO SPS(검역) 협정 수준의 간결한 협정문 제안
- **[2차 양허요구안]** 지난 10차 협상까지 교착상태에 있던 상품분야 진전 위해 이번 11차 협상에서 양측 일부 품목 추가 개방
- **(중국)** 1차 양허안에 비해 품목수 대폭 줄인 반면 수출주력품·고관세 품목 발작물 중심으로 시장개방 요구
- ※ 상식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될 만한 것

농정이슈

- **(한국)** 품목단체들이 제시한 민감품목은 제외, 비민감품목 일부 개방

자료 : 한국농정신문(2014.6.9.) / 원예산업신문(2014.6.11.)

산업통상자원부에 TPP 영향분석 보고서 제출(6월 중순까지)

- **[TPP 참여 시 전망 (수혜)]** 자동차첨유기계, **(피해) 농업 유일**하게 타격
- **(정부 입장)** TPP 참여에 따른 전 산업 실질 GDP가 ‘플러스’ 결론* 나면서 **사실상 ‘TPP 참여’ 로 가닥 잡을 전망**

※ 각 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6월 중순까지 최종 수치 용역보고서 형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 6월 말 발표 예정

자료 : 매일경제(2014.6.10.) / 한국농업신문(2014.6.13.)

<미국, TPP 협상에 일본 포함시키는데 노력>

- **[미국, TPP협상에 일본 포함 노력]**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과 미국일본의 역할 토론회』 참석해 **일본과 함께 TPP 성사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
- **[미국 농축산업계, 일본 예외 두는 TPP 반대]** TPP 교섭 중인 일본*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판매)시장 개방 하지 않으면 TPP에 대한 지지 철회 입장(미국 로이터통신, 6.9일)
- ※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에 대한 관세 철폐에 유보적인 일본을 아예 TPP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 일부 주장
- **[미국 정부 입장, 현재 협상 진행 중]** TPP 목적은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접근성 높이려는 것, TPP가 일본 농산품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확신(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 언급)

자료 : OBS NEWS·연합뉴스(2014.6.11.) / 조선일보(2014.6.12.)

수입과일 증가로 인해 국내산 과일 영향 우려

- **[최근 외국산 과일류 수입 급증]** 올해 망고, 체리, 바나나 등 수입과일 수입량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내산 과일 소비대체 우려**, 특히 망고, 체리 수입량 급증
- **[망고수입량]** (1~5월) 전년대비 121%↑, (6월) 주요 수출국의 물량 증가세 이어져 전년대비 증가 전망
- ※ 망고 주요수입국은 필리핀과 태국인데, 최근 국내 수요 확대 영향으로 파키스탄과 베트남으로 다양화

농정이슈

- **[체리수입량]** (5월) 미국 캘리포니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40%↓, (6월) 워싱턴산 체리 작황 양호(전년대비 40%↑)해 전년대비 증가 전망
 - **(한미 FTA 발효 후 체리 수입 급증)** 한미 FTA 발효(2012.3.15.) 직후 미국산 체리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체리 수입 크게 증가
 - ※ 미국 신선체리 한국 수출 비중: ('11) 7.5% → ('12) 11.1 → ('13) 17.4
 - ※ 한국 전체 신선체리 수입 중 미국산 신선체리 수입비중: 97.8%('13년 기준)
 - **[키위수입량]** (5월) 뉴질랜드 작황 양호해 전년대비 40%↑, (6월) 수입증가 이어질 전망
 - ※ 5월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비율: ('13) 53% → ('14) 77%
 - **[바나나수입량]** (5월) 전년대비 17%↑, (6월) 필리핀 현지작황 양호해 전년대비 증가 전망
 - ※ '13년 수입비중(금액기준, 관세청): 바나나(27.3%) > 오렌지(21.0%) > 포도(20.3%) > 체리(9.7%) > 파인애플(6.6%) 순
- 자료 : 농민신문·원예산업신문(2014.6.11.) / 한국농어민신문(2014.6.12.)

<미국산 오렌지주스 수입 급증>

- **[한국, 한미 FTA(2012.4월) 영향으로 미국산 오렌지주스 수입 급증]** 2014.1~4월 1,320만 켈런(5,000만), 2013년 수입물량 1,650만 켈런에 근접(월스트리트저널 보도)
 - ※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 ('11년) 8위 → ('14년) 2위(캐나다 1위)
- **(원인)** FTA 체결 전 한국은 주로 브라질에서 오렌지주스 수입했으나 한미 FTA 체결 이후 관세*가 철폐되면서 미국 제품 가격 경쟁력 향상
 - ※ (기준) 54% → (한·미 FTA 발효 이후) 무관세
- **(전망)** 한미 양국 간 무역 분쟁 해소*(2014.4월)되면서 한국 오렌지주스 수입 더욱 증가
 - ※ 한·미 FTA 관련 통상마찰로 여겨졌던 원산지 증명 문제에 대해 양국 제품의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합의 → 한국 관세청, 미국산 농축액 원산지 규정 위반한 단서 포착해 '오렌지주스(주스에 들어가는 농축액 미국산 여부)'에 대해 '13.6월부터 고강도 조사 벌였지만 '14.4월 특혜관세 계속 유지(4.17일)
- **[미국, 오렌지주스 소비 감소 추세]** 과거 아침식탁 주요 메뉴였지만 스포츠드링크와 향이 첨가된 물이 대체하면서 오렌지주스는 **지난 10년 동안 34% 감소**

자료 : KBS·YTN(2014.6.7.) / 뉴스핌연합뉴스(2014.6.7.) / 매일경제·헤럴드경제(2014.6.9.) / 한국경제(2014.6.10.)

농정이슈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 **[수입 쇠고기 가격 급등세]** 국내산 삼겹살*과 한우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쇠고기 가격까지도 상승, 이와 같은 현상 당분간 지속 전망
 - ※ AI(조류인플루엔자), AI 유행에 따른 닭고기 대체효과, 기온 상승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로 돼지고기 수요 확대
 - **(배경)**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 앞두고 **수요 증가**, 최근 **중국인 식성변화***, **미국 남서·중서부 지역 가뭄**으로 **육우 생산량 63년 만에 최저 수준****
 - ※ 중국 쇠고기 수입량(미국육류수출협회): ('12) 9만9,000톤 → ('13) 40만 톤, 약 4배 ↑, 비교적 값이 저렴한 돼지고기·닭고기 주로 소비하던 중국인들이 소득증가에 힘입어 최근 쇠고기 소비 증가
 - ※※ 미국 '13.상반기 쇠고기 가격(미국 농무부(USDA)): '87년 이후 가장 높은 파운드(453g)당 5.28달러
- 자료 : 조선일보(2014.6.9.) / 머니투데이(2014.6.10.)

2014년 5월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신선농식품 감소, 가공식품 증가

- **[5월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5.2억 달러, **전년 동월대비 5.0%↑**
 - **(신선농식품)** 94.8백만 달러, **전년 동월대비 11.9%↓**
 - ※ (증가) 인삼·파프리카·배·채소종자
 - ※ (감소) 김치·딸기·장미·백합·팽이버섯
 - **(가공식품)** 429.0백만 달러, **전년 동월대비 9.6%↑**
 - ※ (증가) 껌·제3맥주·음료·비스킷·고추장
 - ※ (감소) 커피조제품·라면·설탕·조제분유
- **[국가별]** (증가) 미국(5.6%)·홍콩(4.1%)·일본(2.5%)·EU(102.1%) / (감소) 대만(△13.1%)·중국(△7.5%)·러시아(△3.4%)·ASEAN(△2.2%)
- **[신선농식품]** (증가) 유자차(17.3%)·인삼(17.1%)·파프리카(16.9%) / (감소) 백합(△37.3%)·팽이버섯(△7.0%)·딸기(△9.4%)

자료 : NEWSis·시사뉴스·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KBS·파이낸셜뉴스(2014.6.1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14년 5월까지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25.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 - 5월 한 달간 신선농산물은 중국·일본을 중심으로 인삼·유자차·파프리카 증가, 가공식품은 미국·홍콩 등으로 음료·맥주·고추장 등 증가 -」(2014.6.13.)

농정이슈

□ 각국 정부 유관기관 농수산물 단체, 브랜드 마케팅 활발

- **[각국 농산물 유관기관 마케팅 활발]** 수입 농수산물 경로 다양화,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산지 청정도·안전성 앞세워 브랜드 마케팅에 더욱 주목
 - **(농수산물 브랜드화, 충성고객 확보 마케팅 본격화)** 노르웨이 연어, 호주 포도, 캘리포니아 체리, 뉴질랜드 키위 등 한국 식탁을 수입산 농수산물이 장악하면서 각국 정부 유관기관인 농수산물 단체들이 직접 나서 마케팅에 주력
 - ※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NSC) 초중생 급식체험·쿠킹 클래스 소비자 체험 마케팅
 - ※ (캘리포니아체리협회) 인터넷에서 퀴즈 이벤트 진행, 추첨 통해 LED 3D TV 증정하는 대규모 프로모션 마련
 - ※ (뉴질랜드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 TV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에서 플러스친구 서비스 개설
 - ※ (미국육류수출협회) 카카오톡에 아메리칸 미트 스토리 코너 개설, 미국산 육류·맛집 정보 제공
- **[한국 시장, 수입 다변화 트렌드 급속 진행 중]** 선택 폭 확대된 소비자는 가격만 따지기보다 맛·식품 안전성·산지의 청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브랜드 마케팅은 필수, 각국 농수산물 기관에게 매력적인 시장

자료 : 서울경제(2014.6.9.)

□ 정부, 쌀시장 개방 맞춰 '쌀 자조금' 도입 검토

- **[농식품부, '쌀 자조금' 조성 방안 검토]**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지원책으로 농민들의 자생력 키우기 위해 '쌀 자조금' 조성 방안 검토 중
 - ※ WTO 출범과 FTA 체결 등 시장개방 상황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 현재 국내 자조금 운영현황: 한우, 한돈, 화훼, 낙농 등 '13년 기준 24개 품목으로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적용
- **(농가 협조 절대적)** 관련법에 따라 자조금 조성 위해 전체 농가의 2/3 동의 필요
 - ※ 쌀 농가 70만호라고 가정할 때 산술적으로 40만호 승낙 필요하지만 쌀 특성상 동의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 문제
- **(경영체 구성 시급)** 자조금은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를 선도할 경영체 구성 시급

자료 : NEWSis스페셜경제·시사뉴스·우먼퀀슈머(2014.6.9.)

농정이슈

□ 신선농식품 항공수출 지원 확대

- **[특별할인 항공운임 적용 노선 확대]** 농식품부, 신선농식품 수출확대 위해 **6월부터 특별할인 항공운임 적용 노선 5개 추가**
 - ※ (기존) 3개 노선(모스크바,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 (추가) 5개 노선(파리, 런던, 마드리드, 취리히, 비엔나)
- **[2013년 특별할인 항공운임 성과]** 대한항공과 업무협약 통해 **2013년부터** 일부 항공노선(모스크바,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이용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특별할인 항공임 적용, **유통할증료의 30% 지원**
 - ※ 모스크바(일반 4,000원/kg → 특별 3,000원/kg),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일반 3,500원/kg → 특별 2,700원/kg) 지원
- **(2013년 딸기·버섯 수출 증가)** 유럽지역 딸기 수출 2012년 대비 300%↑, 버섯 1,717% ↑
- **[향후계획]** 선도관리가 중요한 신선농식품의 수출 확대 위해 국내 항공사와 지속적인 협의 통해 특별항공임 적용노선 확대
- **[기대효과]** 신선 농식품 수출비용 부담 경감되어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

자료 : 뉴스토마토·NEWSis·식품저널·이데일리(2014.6.1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신선농식품 항공수출 지원 확대 - 특별할인 항공임 적용 노선이 기존 3개에서 5개추가 -」(2014.6.13.)

□ FAO, 세계 나무 종 절반 생존 위협 경고

- **[FAO, '지구 산림 유전자원 상태' 보고서 발간*, 6.3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구 생태계 가운데 특히 **산림의 생물 다양성 관련 별도 위협 정보**
 - ※ 지구 전체의 산림 유전자원 실태와 관련 종합적인 보고서 낸 것은 이번이 처음
- **(산림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 확대·강화 촉구) 세계 숲 나무 종의 절반이 목초지·경작지로 전환, 과도한 이용, 기후변화 영향에 의해 위협**
- **(산림 다양성에 대한 위협 대부분 저개발국가·개발도상국 집중)** 1990~2010년 사이 가장 많은 숲이 사라진 나라는 브라질·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탄자니아·짐바브웨·콩고민주공화국·미얀마·볼리비아·베네수엘라·오스트레일리아

자료 : 한겨레(2014.6.11.)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6.11일] 농식품부, AI 방역 체계 개선방안 수립 과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생산자단체, 학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주요내용) 전체(세부과제 24개)에 대하여 논의하되, 쟁점과제*(8개) 위주로 의견수렴 추진
 - ※ ① AI 특별관리지구 설정·관리, ②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③ 축산업허가제 관리 강화, ④ 가금농장 리모델링, ⑤ SOP 개선, ⑥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⑦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현실화, ⑧ 백신 개발 및 도입

자료 : 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헤럴드경제(2014.6.11.)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2014.6.11.)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6.10일] 올 초 AI로 인한 불필요한 살처분과 이동제한 시행으로 피해 확산, 사전예방, 초동대응, 농가보상 미진 지적, 현실 고려한 재정비 필요
 - (AI 원인규명과 방역대책) 선진축산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자료 : 일간투데이(2014.6.10.)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2014.6.11.) / 메디컬투데이·아시아투데이(2014.6.12.)

<AI 관련 충남·북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제주도 가금류 이동승인 해제>

- [충북 AI 방역대책본부, AI 관련한 모든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5.30일] 1.27일 진천군 이월면 중오리에서 처음 발생 이후 124일만
 - ※ 도내 중오리·종계 99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음성군 관내 경계지역 33농가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 5월 동안 이동하는 가금류 155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이상無
 - (AI 발생농가, 6월 본격 재입식) AI 발생농가 재입식 시험도 음성군 5.29일자로 완료, 진천군 6.4일이면 모두 끝나 AI 발생농가도 6월 본격적으로 재입식 예상
 - ※ (충북 AI 방역대책 본부) 5월 전남 지방 발생사례가 있는 점 고려해, 도내 19개소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은 6월까지 계속 유지

자료 : 농민신문(2014.6.9.) / YTN(2014.6.10.) / news1·매일경제·연합뉴스(2014.6.11.) / NEWSis(2014.6.12.)

참고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_「충북 도내 전역 고병원성 AI 관련 이동제한 해제」(2014.5.30.)

- [충남, AI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6.17일] 1월부터 발생한 도내 AI가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고 6.17일부터 닭·오리 등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 ※ 한때 최대 19개 지역에 이동제한 조치 내려졌으며, 현재 남아있는 제한 구역은 공주 단천 한 곳
 - (살처분 현황) 1.24일 부여에서 AI 최초 발생한 뒤 천안과 논산, 청양 등으로 확산돼 74개 농장에서 기르던 가금류 252만 2천여 마리
- [제주특별자치도, AI 가금류 이동승인* 해제, 6.11일] AI가 진정됨에 따라 가금 농가의 가금을 도축출하·분양할 경우 의무화 했던 이동승인(임상검사) 해제, 전국 상황 지켜보면서 안전한 시점에서 AI 종식 검토할 방침
 - ※ 가금이동 시 임상검사는 AI 차단방역 위해 가금류 이동을 행정시 축산과에 사전 신고 후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경우 이동 승인서 발급하는 제도, AI가 발생한 1.28일부터 시행
 - (주요사항) AI 발생상황 진정에 따른 가금류 이동 시 임상검사(관찰)의무화 명령 고시 폐지 고시

자료 : YTN(2014.6.10.) / news1·매일경제·연합뉴스(2014.6.11.)

자료 : NEWSis(2014.6.11.)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청 고시/공고_「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관찰) 의무화 명령에 따른 고시 폐지고시」,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2014.6.10.)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 [제15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6.12일] 농식품부, 중국 연운항시에서 중국 농업부와 제15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의 진행
 - ※ 한·중 농업당국 간 협력 및 교류 증진 목적으로 '96년 농업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후 매년 교대로 개최
 - (논의내용*)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 위한 협력방안 중점 논의
 - ※ △양국 농업·농촌 및 식량안보 관련 정책 소개, △양국 가축질병 예방 협력방안, △농산물 안전관리 교류·협력, △동물용의약품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기대효과) 양국 AI 발생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철새도래지 공동조사 통해 가축질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자료 : news1·NEWSis·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4.6.1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한·중 농업당국, 조류인플루엔자 공동연구방안 등 논의 - 농식품부, 제15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참석 -」(2014.6.12.)

정책브리핑 고랭지 배추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유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6.13.)

☐ 고랭지배추 산지조직화 통한 수급안정 방안 추진

- **[고랭지배추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보장]** 자율적 수급조절협의체 구성(컨트론타워역할), 강원연합사업단(광역 출하조직) 중심으로 연합판매사업 추진
 - **(배경)** 주산지역 집중*되어 있어 기상이변에 취약한 반면, 오히려 타 품목 및 작형에 비해 조직화에 유리
 - ※ 고랭지배추 재배지역 강원도에 집중, 8~9월 가락시장 공급물량의 95% 이상 점유
 - **(의의)** 지자체, 생산자단체, 유통인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수급조절협의체 구성*하여 **사전적·선제적인 수급조절 유도**
 - ※ 지자체(강원도)의 적극적 주도로 주산지역 조합들의 자발적 참여 첫 사례
- **[기본방향]** 조합 개별출하에 따른 출하물량 편중 방지, 계통출하를 통한 출하 분산 및 안정생산 유도
 - **(지자체, 생산자단체, 유통인)** 자율적 수급조절 협의체 구성하여 사전적, 선제적 수급조절 유도
 - **(중앙정부)**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 조직화 기반 구축 지원
- **[향후계획]**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효과적 운영 위해 **참여 조합**에 대해 가공·저장 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계약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 추진목표 및 체계

- **[추진목표]** 2017년까지 고랭지배추 평년생산량(181천 톤)의 50% 수준으로 취급 물량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급 조절능력 확보
 - ※ 사업목표: ('14) 50천 톤 → ('15) 65 → ('16) 80 → ('17) 90
 - ※ 참여농가: ('14) 200호 → ('15) 260 → ('16) 330 → ('17) 400
- **[추진체계]** 신속한 의사결정 및 성과창출 위해 우선 농협 중심으로 수급조절 협의회 및 광역 출하조직 구성(6월)

- **(농식품부)** 가공·저장시설 등 정책지원 연계, 자율적 수급안정대책 협의 및 매칭 지원, 임의자조금 등 제도 개선
- **(수급조절협의회)** 출하조절, 산지폐기 등 자율적 수급안정 대책 심의, 자체 수급안정자금 조성 및 운영
- **(강원연합사업단, 농협)** 사전적 재배면적 조절, 농협계통 등 마케팅 업무 총괄, 참여농협 의견 조정, 조직화 교육 및 소비촉진 홍보
- **(참여농협)** 농업인 조직화, 계약재배, 포장관리 및 출하 담당

☐ 효율적 연합판매사업 추진

- **[출하 전 단계]** 고랭지배추의 안정적 생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연계하여 조직화된 농가 대상으로 사전적 재배면적 조절 유도, 산지작업반 운영하여 생산 관리 지원*
 - ※ 병충해 방제, 수확작업
- **[출하단계]** 연합사업단 중심으로 출하·판매 창구 일원화하여 시장교섭력 확대, 순기별 출하계획 수립하여 조합별 개별출하에 따른 홍수 출하 막고 적정 물량 분산 출하되도록 조절
 - ※ 정가수익매매 확대, 판매처 다각화하여 농가 안정적 소득 보장
- **[수급안정]**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고랭지배추 수급 안정자금 조성, 자율적인 수급조절 추진
 - ※ 수급불안 시 자체 기금 활용하여 수급안정 조치 추진할 경우 정부자금 매칭하여 지원

〈고랭지배추는 왜 다른 배추보다 비쌀까?〉

- **(배추의 생육특성 및 작형별 생산비 차이)** 배추는 4개 작형으로 연중 생산되나 작형에 따른 특성 다양
 - ※ 봄배추(5~6월)·가을배추(10~11월): 상대적으로 재배 용이해 가격 낮은 편
 - ※ 고랭지배추(8~9월)·월동배추(3~4월): 작형변동 심하고 생산비용 많이 소요되어 가격 높은 편
 - 비료비, 농약비 많이 소요, 토지임차료도 높아 다른 작형에 비해 생산비가 높은 편
 - 작업여건, 높은 인건비, 감도 등으로 유통비용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생육 특성상 폭염, 장마 등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급감의 가능성 높은 편
 - 단위면적당 수확량 적어 가격 급등의 위험성 상존
 - ※ 생산비용(10a당 경영비): (봄) 755,729원 / (고랭지) 965,023원 (봄배추 대비 27.7% ↑)
 - ※ 유통비용(원/포기): (봄) 749.9원 / (고랭지) 986.2원 (봄배추 대비 31.5% ↑)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시행

□ 7~8월 엘니뇨 영향으로 지역별 집중호우 예상

- [7~8월 집중호우 예상] (6월) 덥고 맑은 날씨 지속 → (7~8월) 엘니뇨대기 불안정으로 지역별 집중호우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재해대책 발표
 - (1998년 엘니뇨 결정, 농업부문 피해발생*) 많은 인명·재산피해 발생하였으며, 농업부문도 피해 발생하여 2,950억 원 복구비 지원
 - ※ 농작물 86천ha, 농경지 유실·매몰 8천ha, 수리시설 2,529개소

□ 여름철 재해대책 수립 및 사후대비 철저 당부

- [여름대책 재해대책 수립]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설치·운영, 풍수해(호우·태풍), 폭염, 저온에 대비한 단계별 행동요령, 저수지 안전관리대책 강화 등

〈종합대책 주요내용〉
•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설치·운영(6.10.~10.15.) ※ 상황실장(농업정책국장) 주관 초동대응팀 등 5개팀 16명 • 풍수해(호우·태풍), 폭염, 저온에 대비한 단계별 행동요령 • 저수지 안전관리대책 강화 • 영농단계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농기계 재해대비 관리대책 • 사전예방·복구상황 및 현장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별 지역 담당관 지정 운영

- [재해대책 철저 당부] 농업 관련기관, 지자체, 농업인 여름철 재해 사전·사후 대비 철저 당부
 - (사전대비 통해 자연재해 최소화 노력)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대부분, 농업인 스스로 사전대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당부) 재해발생 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복구 비용에 비해 상당히 부족, 실손 수준 보상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당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6.11.)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 주요내용

- [농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농림식품 신기술 조기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 ※ (‘14.6.3.)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 제정 → (6.9.) ‘2014년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시행계획(신청·접수) 공고
 - (인증 기술분야) △농업기술, △축산수의기술, △식품기술, △임업기술, △농림식품기반기술, △농림식품융복합기술 6개 대분류 기술 및 18개 중분류 기술
 - (신청일정 및 방법) 6.23~7.8일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 통해 온라인으로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
 - (인증 심사평가 절차) 1차 서류·면접 → 2차 현장·확인 → 3차 종합회의
 - ※ (1차 서류·면접 심사)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평가
 - ※ (2차 현장·확인 심사) 1차 심사결과의 현장 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평가
 - ※ (3차 종합 회의 심사) 1·2차 심사의 적정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평가
- [인증서 교부] 3차 종합심사평가 통과한 기술에 대해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공고 → 이해당사자 이의신청처리 → 최종 농림식품신기술 확정 후 인증서 교부
- [인증 획득 시 지원] △인증된 신기술 이용하여 제품 제조·생산하려는 자에게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자금 지원, △신기술을 보유한 자에게 기술지도,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인증된 신기술 활용·제조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 [기대효과] 농림식품분야 산업체 대부분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 보유하고도 자체 산업화 추진하는데 한계,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됨에 따라 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6.11.)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농식품부, 관련기관·단체들과 업무협약 체결

- **[농식품부·관련기관·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6.10일]**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식 개최, 업무협약서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 aT, 농협중앙회, (사)대한영양사협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추진배경)** 농산물수급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인 채소류 소비확대
- **(추진목적)** 제철 농산물(배추, 양파) 소비확대 여건조성
- **(주요내용)** 생산자·소비자간 상생협력 통한 농업·농촌 발전에 공동 노력,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에 상호 협력
 - ※ (농식품부·유통공사·농협)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제철 농산물에 대한 유통정보 제공, 교육·홍보 지원
 - ※ (대한영양사협회·어린이집총연합회) 제철농산물 메뉴 확대 및 다양한 요리개발·보급, 어린이들에게 국산농산물 입 맛 들이기

종자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국립종자원·국립생물자원관 업무협약 체결

- **[국립종자원·국립생물자원관 업무협약 체결, 6.10일]** 종자 전문가 양성, 인프라 구축 및 종자 분야의 연구발전 위해 업무협약식 개최
 - **(추진개요)** 개방소통·공유협력 통한 민간대상 종자검정·관리 교육 제공
 - **(주요내용)** i) 종자관련 정보 이용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협력, ii) 종자관련 전문가 양성 위한 교육, 워크숍에 관한 업무, iii) 종자관련 정보제공 위한 각종 홍보 협력, iv) 종자 지재산 활용·분쟁이슈 공동대응 위한 협력, v) 관련 분야 최신 정보 및 자료 상호 교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6.10.)

연구지원 2014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자료 : 한국은행(2014.6.12.)

☐ 수출물가지수

- **[2014.5월 수출물가]** 원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6% ↓
 - ※ 평균환율(원/달러): ('14.4월) 1,044.55 → (5월) 1,024.99 (전월대비 1.9% ↓)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0.1% ↓**

■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품목 등락률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냉동참치 8.0, 신선어패류 0.4	냉동참치 3.6
	하락	냉동어류 -4.2	신선어패류 -21.5, 냉동어류 -17.5, 배 -3.1

- (공산품) 전월대비 1.6% ↓

■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 월 대 비				전년 동월대비			
		2014년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5월
총 지 수	1000.0	0.7 <0.0>	-0.4 <-0.4>	-2.7 <-0.3>	-1.6 <0.2>	-3.6 <-2.0>	-4.3 <-1.6>	-7.4 <-0.8>	-8.1 <-0.7>
농림수산물	4.6	2.2 <1.0>	-2.4 <-2.4>	-2.0 <0.6>	-0.1 <1.6>	-3.8 <0.7>	-8.3 <-3.1>	-10.9 <-2.5>	-9.4 <-1.3>
공 산 품	995.4	0.7 <0.0>	-0.4 <-0.4>	-2.7 <-0.3>	-1.6 <0.2>	-3.6 <-2.0>	-4.3 <-1.6>	-7.4 <-0.8>	-8.1 <-0.7>
섬유가죽제품	36.7	1.3	0.0	-2.6	-1.9	-0.1	-1.5	-5.5	-6.4
석탄석유제품	119.5	1.0	-0.9	-2.1	-1.9	-8.7	-5.2	-4.0	-4.6
화학제품	150.6	-0.2	-0.9	-3.0	-1.7	-5.6	-5.7	-8.4	-8.4
제1차금속제품	84.1	1.3	-0.5	-2.5	-1.1	-7.8	-8.7	-9.9	-8.5
일반기계제품	92.0	0.8	0.2	-1.9	-1.7	-1.8	-2.8	-6.2	-6.6
반도체·전자표시장치	175.3	0.1	-0.8	-3.9	-1.4	2.1	-2.9	-11.3	-12.7
통신영상음향기기	59.0	2.5	0.4	-2.4	-1.2	-3.0	-1.9	-2.3	-7.9
수송장비	116.1	0.7	0.1	-2.4	-1.9	-0.5	-1.4	-5.3	-6.1

주 : 1) < > 내는 계약통화기준

2)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

수입물가지수

- [2014.5월 수입물가] 유가* 소폭 상승했으나 원화 환율 하락으로 전월대비 0.7%↓

※ 두바이유가(월평균, 달러/bbl): ('14.4월) 104.63 → (5월) 105.62 (전월대비 0.9%↑)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2.2%↓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품목 등락률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하락	
	천연고무 -5.8, 원목 -4.7, 옥수수 -4.0, 냉장 어류 -3.8, 밀 -2.3, 과일 -1.9, 쇠고기 -1.7	천연고무 -35.3, 옥수수 -16.3, 밀 -11.5, 냉장 어류 -9.0, 원목 -6.3, 콩 -5.5, 커피 -1.4

- (중간재) 전월대비 1.8%↓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014년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5월
총 지 수	1000.0	0.9 <0.1>	-0.5 <-0.5>	-2.5 <-0.1>	-1.7 <0.1>	-4.8 <-3.0>	-4.5 <-1.7>	-6.9 <-0.3>	-6.8 <0.4>
원 재 료	361.4	1.3 <0.7>	-0.6 <-0.5>	-2.6 <-0.2>	-1.6 <0.3>	-4.8 <-3.4>	-3.5 <-0.7>	-6.2 <0.8>	-6.0 <1.8>
농림수산물	21.5	1.9	2.4	-2.0	-2.2	-8.7	-7.5	-8.2	-9.2
광 산 품	325.0	1.4	-0.8	-2.7	-1.5	-4.3	-3.0	-5.9	-5.7
중 간 재	453.1	0.5 <-0.2>	-0.8 <-0.8>	-2.6 <-0.1>	-1.8 <0.0>	-6.1 <-4.2>	-6.3 <-3.4>	-8.4 <-1.6>	-8.3 <-0.9>
석탄석유제품	75.6	-0.7	-2.7	-2.8	-1.1	-5.9	-5.2	-3.2	-2.1
화학제품	88.3	0.2	-0.9	-2.8	-1.9	-5.9	-6.1	-9.2	-9.3
철강1차제품	35.4	0.8	-0.1	-2.5	-1.8	-5.0	-6.0	-9.1	-8.6
비철금속과1차제품	36.6	0.1	-0.4	-1.4	-0.8	-13.8	-12.5	-11.2	-9.5
일반기계제품	19.6	1.1	0.2	-2.5	-1.7	-4.3	-4.2	-7.1	-6.5
전자전자기기	118.2	0.8	-0.5	-2.9	-2.5	-6.3	-7.5	-11.5	-12.4
자 본 재	87.3	0.9 <-0.1>	0.0 <-0.1>	-2.3 <0.1>	-1.8 <-0.1>	-3.2 <-0.1>	-3.5 <-0.2>	-6.7 <0.0>	-6.9 <-0.2>
소 비 재	98.2	0.7 <0.1>	0.2 <0.1>	-1.5 <0.4>	-1.3 <0.2>	0.5 <1.7>	-0.1 <1.6>	-2.9 <2.0>	-2.9 <2.5>

주: 1) <>내는 계약통화기준

2)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

2014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개요

- [FAO, 5월 식량가격지수*] 207.8 포인트, 전월대비 1.2%↓, 전년 동월대비 3.2%↓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식량가격지수: '90년 이후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23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73개) 모니터링하여 매월 작성·발표(2002-2004년 평균=100)

- (유제품·유지류·곡물 하락, 설탕·육류 상승) 지난 3월 가장 높은 가격지수(212.8 포인트) 보인 이후 4, 5월 연속해서 가격지수 하락

※ 식량가격지수: ('13.4월) 216.9 → (8월) 204.5 → (12월) 205.8 → ('14.3월) 212.8 → (4월) 209.3 → (5월) 207.8

품목별

- [곡물] 204.4 포인트, 전월대비 1.2%↓, 전년 동월대비 13%↓

- (원인) 양호한 생산조건 및 공급량 전망에 의해 옥수수 가격 하락, 미국 날씨 개선 및 우크라이나의 원활한 공급에 의해 밀 가격 하락세

- [유지류] 195.3포인트, 전월대비 1.8%↓

- (원인) 팜유, 두유, 유채씨유 가격 하락, 특히 팜유 가격은 동남아시아의 생산량 증가, 말레이시아 화폐 강세, 국제수입수요 감소에 기인하여 2개월 연속 하락

- [설탕] 259.2포인트, 전월대비 3.7%↑

- (원인) 엘니뇨 기상조건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 전망, 설탕 가격 5월 초 급등, 5월 중순 이후 인도와 태국의 재고량 증가에 의해 가격은 소폭 하락

- [육류] 189.1 포인트, 전월대비 1.8%↑

- (원인) 미국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 물량에 대한 우려로 돼지고기 가격 약간 상승

- [유제품] 238.9 포인트, 전월대비 5%↓

- (원인) 유제품 가격은 2013년·2014년 초 이례적 상승했으나, 최근 수출 공급량 감소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 생산량 증가 전망, 추가 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구입량 감소로 모든 유제품 평균 가격 하락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6.10.)

국제신용평가사 Moody's, 한국 분석보고서 발간

Moody's, 한국 분석한 첫 보고서 발간

- [‘한국: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Korea: Economic Growth Fundamentals Remain Strong, Despite Challenges)’ 분석 보고서* 발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Moody's, 한국 다룬 경제 전망 보고서 첫 발간(6.9일)
※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와는 별도로 해당 국가의 주요 이슈 분석한 수시 보고서

주요내용

- [2012년부터 회복세 평가]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가격 아닌 품질 위주), 재정 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기인
 - (주요원인)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확대
 - (2014년 성장세 지속 전망)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 견인, 2014년에도 성장세 지속하는 데 도움 될 전망
※ 한편, 최근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정적 경제 영향은 일시적(short-lived) 이라고 평가
 - (한국,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 투자처(safe haven)’) 한국이美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
 - (대외취약성 개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로 지적 되었던 대외취약성이 충분한 외환보유액, 은행의 리스크 관리제고, 대외채무 축소 통해 크게 개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조개혁 노력]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 이어갈 전망
※ '09년~'13년 중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한국경제 활력 저하 개선) 여성·청년 고용지원,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개혁 통한 서비스부문 활성화는 물적·인적자본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 개선

- (한국 2014-2015년 성장률, 3.8% 전망*) Moody's측 보도자료 외에 본 보고서상 2014년, 2015년 각각 3.8% 성장 전망
※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13.11월) '14년 3.5% → ('14.3월) '14, '15년 각각 3.8%
- (구조개혁 성공할 경우) 2018년에는 한국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 일본, 프랑스 넘을 것으로 전망
- [공공기관/가계 부채, 한국경제의 도전요인] 정부 정책적 노력으로 효과 예상
 - (공공기관 부채) 공공부채 감소 위한 세부적 노력으로 한국 신용등급 주요 제약요소인 정부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 감소
※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positive):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부문 통합부채 산출’
 - (가계 부채)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우려 요소는 있으나, 최근 증가세 둔화
※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positive):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국민행복기금’

자료 : 기획재정부(2014.6.9.)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